

배부른 소가 누워 되새김질 하는 '臥牛形'

■ 재물이 넘치는 땅, 강진

풍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암이 남성적 역동성과 함께 다양한 인정이 배출되는 땅이라면, 강진은 월출산을 등지거나, 간해방(乾亥方)에 포치(布置)한 산수배합(山水配合)으로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산(物産)이 풍부하고 인심이 따뜻한 이재(理財)의 땅이다. 특히 강진읍은 우두봉(牛頭峰)의 낙맥인 보은산이 우선룡(右旋龍)으로 터를 일구면서 좌수도우(左水到右)하는 좌선수의 탐진강이 제왕방(帝王方)에서 득수(得水)하여 읍내를 감싸고 당문파(堂門破)로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내륙 깊숙이 파고 들어오는 탐진만이 내조(來朝)하여 정조수(正朝水)가 되니 대부(大富)가 끊이지 않는 형국으로서 기묘하고 아름다운 이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소가 일을 할 때 쓰는 '멍에'를 '바다 가운데에 집어 던져버렸다'는 뜻의 가우도(駕牛島)가 수구(水口)의 나성(羅星)으로 탐진강 하류에 떠 있고, 여물통을 의미하는 신학산 아래의 '구식골'과 풀밭이 크고 넓어서 소를 놓아기른다는 뜻의 '목리(牧里)가 소의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땅의 숨결을 따라 <17>



마을의 변명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강진군 병영면의 '조산'

소는 공간 넘치는 부자 상징

허끝에 닿아있으니 이 얼마나 평안하고 안락한 풍수적 포치(布置)인가? 그 규모가 작은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재물이 넘치는 길지(吉地)임에 틀림없다.

강진읍은 전체적으로 배부른 황소가 누워서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소위 '외우형(臥牛形)'이다. 소의 머리를 뜻하는 우두봉(牛頭峰)을 진산(鎭山)으로 세우고, 만 가지의 덕을 쌓고 베풀어서 커진 큰 깃털이 물가에 닿아있다는 의미를 가진 탐진강(耽津江)을 앞에 두른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형국이다. 소의 일술부위에 강진군청과 경찰서가 자리 잡고 있으며, 허끝에는 강진고등학교와 강진여중이 있고, 귀구멍에는 고성사(高城寺)가, 왼쪽 목덜미에 금곡사(金谷寺)가 요처(要處)를 선점(先占)하고 있다.

소는 본래 민속신앙에서는 공간이 넘치는 부자를, 도가에서는 안분지족의 유유자적(優遊自適)을, 유가에서는 군세고 변함없는 의(義)를 상징하지만, 불가에서는 인간본래의 마음자리를 의미하고, 그것을 찾아 수행하는 불법을 상징한다.

강진읍의 동쪽에 비파산(琵琶山)이 있는데, 이는 관음보살이 비파(琵琶)를 들고 서있는 형상으로, 소를 호랑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읍의 동북쪽에 위치한 호계리의 '벌골'에서 호랑이가 나오지 못하도록 비보(禱補)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풍수지리에서는 동사택으로 발달된 도시의 경우 정미방(丁未方)의 높은 산은 재물이 가득

찬 창고(倉庫)라고 하여 대단히 귀중하게 여기는데, 강진읍처럼 정격(正格)의 창고사(倉庫砂)가 제 위치에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런데 군민 전체를 먹여 살려야 할 창고격인 만덕산이 심하게 훼손되어 곳곳에 구멍이 뚫린 모습이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강진군의 경제가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고, 원상대로 복원한다 할지라도 다시 지기(地氣)가 이어지는 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할 것이다. 특히 강진지역을 여행하다보면 산맥과 기맥의 흐름을 막고, 단절시키는 산림훼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심하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가 있다. 이는 강진만

의 아름다운 정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예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일찍부터 풍수적 비보(禱補)가 발달하였고, 이러한 선조들의 지혜가 오늘날까지 곳곳에 남아 있는 고장이 강진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풍수적 비보는 골짜기의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구막이를 하거나, 낮고 약한 산줄기(龍)를 비보하기 위하여 당산나무를 심고, 마을 입구에 장승, 서낭당, 입석, 돌탑 등을 세우기도 한다. 그런데 강진 병영에는 아주 특별한 비보가 있다. 병영면 소재지에 인위적으로 만든 조산이 그것으로, 이 산이 언제 어떤 연유로 조성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어느 병마절도사가 부임하여 관내의 지형과 지세를 살핀 다음에 수구가 관쇄(關鎖)되 지못하고 허(虛)하여 지기(地氣)의 누설(漏泄)에 따른 재물의 손실이 커서 사람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은 말로 안타까워했다. "남쪽 군동에는 천불산(千佛山)이 있고, 도암에는 만덕산(萬德山)이 있으며, 장흥에는 억불산(億佛山)이 있는데 어찌 이 곳 병영에는 이를 능가할 만한 산이 없느냐? 이는 전라병마절도사의 병영이 있는 이 곳의 위신과 체면에 관한 일로서 그냥 목과할 수가 없다"라며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물이 빠져나가는 정미방(丁

'창고'격 만덕산 훼손 아쉬움

未方)에 수구막이의 산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당산나무를 심고 천, 만, 억을 누를 수 있는 수(數)의 '조산(兆山)'이라 명명(命名)하고 매년 유월 유두(음력 6월 15일)에 고을의 풍년과 변명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고 한다. 이는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수구막이 비보풍수(禱補風水)의 전형이고 대표적 사례이다. 그래서인지 병영은 한말까지 '북송상남병상(北松商南兵商)'이라는 조어(造語)가 생겨날 만큼 '개성상권'에 버금가는 '병영상권'이 형성되어 수많은 상인들이 들락거릴 정도로 번창하였다. /전중주 호남대 교수·한국 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전라도 역사이야기

-고대 한·중 항로와 최치원 설화

가뭄에 시달리던 우이도서 용왕 불러 비 내리게 해줘

조선 후기 이종환이 지은 '택리지'에 의하면, 최치원을 태운 배는 월출산 서쪽 기슭에 자리잡은 영암 구림마을의 상대포에서 출발하여 흑산도와 흥도, 가거도를 거쳐서, 중국의 영파(寧波)에 도착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는 최치원이 당으로 건너간 항로를 전하는 흥미로운 자료라 할 수 있는데, 그 항로 상에 최치원 관련 설화가 전하고 있다. 먼저 상대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해남 화원면 금평리의 운거산(雲居山) 자락에 서동사라는 절이 있는데, 최치원이 이 절을 창건했다는 설화가 전한다. 최치원의 호가 '외로운 구름'이라는 뜻의 고운(孤雲)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구름이 머무는 산'이라는 뜻으로 풀이되는 운거산이라는 이름이 우선 심상치 않다. 이와 함께 화원반도의 끝자락 바닷가에 '당포'라는 의미로 풀 수 있는 '당포(唐浦)'라는 지명이 있는 것도 예사스럽지 않다. 이러한 설화와 지명은 최치원의 도당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최치원 설화에 나오는 우이도 진리마을과 포구 전경

도당 바닷길의 길목에 해당하는 비금도 최남단의 수도마을에도 최치원 설화가 전한다. 그 마을 뒷산(해발 95m)의 8부 능선에 고운정(孤雲井)이라 불리는 샘이 있는데, 설화에 의하면 최치원이 이곳을 지나다가 우물을 파서 비금도의 물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최치원이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선왕산(仙王山) 산정에 올라 기우제를 지내 비를 내리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민중들에게 선인(仙人)으로 추앙받던 최치원의 권능이 잘 나타나 있다.

우이도 진리 마을에는 선인 최치원의 놀라운 권능을 더욱 실감있게 묘사한 설화가 전해진다. 그 내용은 대개 이러하다.

"신라 말에 최치원이 중국으로 건너가던 중에 우이도 진리마을에 도착했다. 때 마침 우이도에는 가뭄이 극심하였는데 주민들은 선생에게 비를 내려주도록 간청했다. 선생은 즉시 북해 용왕을 불러서 비를 내리도록 명하였으나 옥황상제의 명령이 없어서 마을대로 비를 내릴 수 없다고 하며 주저하였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노라고 체근하자, 용왕은 하는 수 없이 비를 내렸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옥황상제가 용왕을 잡아 죽이라고 명하자, 선생은 용왕을 도마뱀으로 변신시켜 자신의 무릎 밑에 감추어 죽음을 면하게 했다."

최치원은 신라 하대 최고의 학자로 동아시아에 문명을 날렸을 뿐 아니라 민중들에게 선인(仙人)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이다. 그런 만큼 그와 관련한 설화는 전국 각지에 남아 전한다. 해남과 비금도와 우이도에 전하는 최치원 설화는 그가 12세의 나이에 당에 유학을 간 역사적 사실과 고대 한·중 항로의 흔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강봉룡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 전라도 방언 (16)

"어서 그만 가 보드라고"

우리말은 대화의 상대에 따라 다양한 높임법이 활용된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가 어렵다고 한다. 대개 중앙어의 입말에서는 아주높임(갑니다), 예사높임(가오), 예사낮춤(가네), 아주낮춤(간다) 등의 네 가지 등분 외에 반말체가 있다. 그렇지만 전라도방언에서는 아주높임과 예사높임이 거의 통합되어 쓰이므로 결국 세 등분 외에 반말체가 있는 셈

이다. 가령 중앙어의 '습니까/습니다'와 같은 아주높임을 전라도에서는 낯선 사람에게나 쓸 뿐, 낯익은 사람에게에는 오히려 '-오/-소'로 표현한다. 그래서 "맛 : (무엇) 허/하시오?, 참, 육박겠소"와 같은 말이 예사높임과 아주높임으로도 쓰일 수 있다. 한편 어떤 일을 회상하는 말에서 '-습디다(종습디다)'는 그대로 쓰이지만 '-습디까?'형은 '-습디어(종습디어? 및

하고 습디어?)' 외에 '-딩겨(종습딩겨/종습딩가?)'형이 쓰이기도 한다. 또 예사낮춤으로 '-소'형을 많이 쓴다. "어서 가 보소"처럼. 그리고 표준어의 청유형 '-세(어서 먹세)'를 '-드라고(어서 먹드라고)'라고 하는데, '-세'보다는 더 완곡한 말맛을 풍긴다. 또 "내가 가겠네"라는 말은 "내가 감세"로도 쓰인다.

/이 두 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붓꽃



붓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산야지의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자란다.

키는 50~60cm 정도로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5~6월이다. 꽃이 활짝 피기 전의 꽃봉오리가 붓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민간에서 약재로 쓰인다.

/리규채 생태사자

2006 전남전 여수거북선축제

2006년 5월 3일(수)~4일(목)

장소: 여수구항 제방공원을유망

2006년 5월 3일(수)~4일(목)

장소: 여수구항 제방공원을유망

2006년 5월 3일(수)~4일(목)

장소: 여수구항 제방공원을유망